

보도시점 2026. 8. 27.(목) 11:00 배포 2026. 8. 27.(목) 10:00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 가능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하였다.

이날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의 노후와 국채 시장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계기로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지는 한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청약기간 9.9~9.15)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아래 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가 즉시 가능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은행) 신한, 하나, NH농협 / (증권)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 NH투자

정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산 버팀목이 되고, 국채 시장과 퇴직연금 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재정경제부 제2차관 축하

담당 부서	국고실 국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민주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김희운 (gia0412@korea.kr)